

생태도시 고창군, 유네스코 4관왕 도전

을 생태·환경 분야 중점사업
 생물권보전 재지정 용역 추진
 고창갯벌 등 람사르습지 인증 신청
 세계 지질공원 인증도 만반 준비



고창군이 생물권보전, 지질공원, 고인돌, 갯벌 등 유네스코 4관왕에 도전한다. 사진은 국가지질공원인 고창 병바위. <고창군 제공>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재지정 용역 추진 등 올해 생태·환경 분야 중점 사업 계획을 내놨다.

국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적극적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생태탐방과 주민 소득 증대의 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주년을 맞는 고창군은 '세계 생물권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고창군은 3월 중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평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추진도 병행한다. 고창군에서는 고창갯벌(2010)과 운곡습지(2011) 등 2곳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람사르습지 도시 국제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고,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 중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여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증이 확정되면 하반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시 '람사르' 상징(브랜드)

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만족,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군은 내년 4월 '유네스코 전북 서해안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올해 진행될 현장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해외 탐방객을 위한 안내판과 홍보체계 구축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서해안권 지질명소의 국제적 위상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되면 고창군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

역', '유네스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는 '유네스코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4관왕을 달성하게 된다.

고창군은 이밖에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영산기맥 술재생태축 북원 사업, 친환경 교통수단(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약취 저감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동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고창의 자연생태환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고창군의 미래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속도

기술이전 등 올 8개 과제 추진
 72억 들여 친환경차 부품 기술 개발

지난해 7월 정부가 지정한 군산의 강소연구개발 특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술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친환경 전기자 부품 소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군산대학교가 핵심 기관으로 참여하고 배후단지는 군산국가산업단지과 새만금산업단지를 포함한 1.8㎢가 해당한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72억원(국비 60억원·지방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자 부품소재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한다. ▲기술개발 연계(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연구소기업 기술기초 평가) ▲기술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혁신네트워크 육성,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역량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자동자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 군산 강소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기술이 적극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강소특구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다"며 "산업 생태계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올해는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앞으로 5년간 맞춤형 기술사업화 등의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100건, 기술창업 50개, 연구소기업 55개, 일자리 609개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박상·박순 초상화, 전북유형문화재 지정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충주박씨 기증유물인 '놀이 박상 초상화'와 '사암 박순 초상화'가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조선시대 문신인 놀이 박상과 사암 박순의 초상화가 지정예고를 거쳐 최근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75호·제276호에 각각 지정됐다.

이 초상화는 충주박씨 문종이 유물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1970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놀이 박상은 병조좌랑, 시간원헌납, 상주목사, 나주목사 등을 역임한 조선 중기 사람과 문신이다. 박상 초상화는 오사모에 담홍색 단령을 입은 전신교의좌상으로 15세기 문인 관료 초상화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놀이 박상의 조카인 사암 박순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조선 중기 문신으로 박순 초상화는 오사모와 청색 단령을 입은 전신교의좌상으로서 16세기 공신 초상화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18세기 이후 이모(移模)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색과 장식적 기법이 추가됐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형적 양식과 시대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화사적과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박상·박순 초상화는 원광대학교 박물관 4층 서화기증실에 보관·전시되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예약 후 관람 가능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놀이 박상 초상화(왼쪽)와 사암 박순 초상화.

정읍시 "백신접종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기업 연수원 유치 박차"

시정 현안 설명 언론 브리핑

정읍시가 4일 '2021년 시정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승기 부시장이 주관, 올해 추진되는 시정 주요 현안과 운영 방향, 각종 사업 추진상황 등을 밝혔다.

박 부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대상, 시기, 방법 등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정읍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7개팀 155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추진단'을 발족했다. 백신은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며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9만3648명이다. 백신 접종은 접종센터와 위탁병원,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자 등을 위한 방문 접종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박 부시장은 연수도시 및 항기경제 기반 구축, 일자리 만들기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전기안전공사 교육원,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등이 건립



정읍시는 4일 박승기 부시장 주재로 '2021년 시정 현안 설명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이라며 "탄탄한 연수도시 기반을 갖춰 나가는 한편 다른 공기업의 연수원, 수도권 지자체 휴양 시설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철보산 벼섯재배사 및 상두산

석산 개발 ▲철보산 입도 개설 구량마을 사방댐 사업 ▲뚝방 사업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군산전북대병원 내년초 착공 2025년 개원

사정동 부지 보상 100% 완료

군산시는 사정동에 건립하려는 군산전북대병원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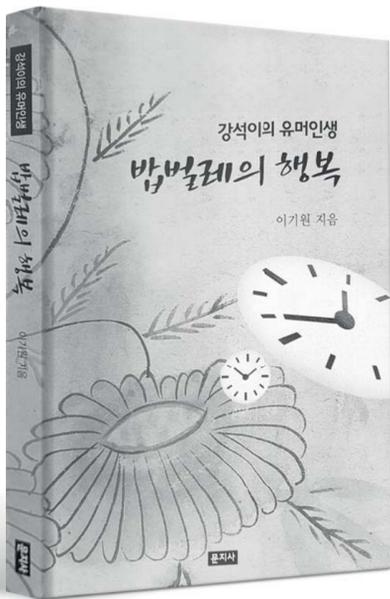
이에 따라 군산시는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게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2018년 전북대병원과 협약을 맺고 토

지 매입작업을 진행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2025년까지 1853억원(국비 556억원 포함)을 투입해 10만349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500병실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지어진다.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국제진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연구지원센터, 장례식장 등을 갖춘 예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